

# 시청사 타워 안내문

Koreanska

스톡홀름 시청사는 스웨덴건축가 라그나르 외스트베리가 디자인하여 1911년부터 1923년, 12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시청사는 여전히 스톡홀름의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사무실, 그리고 매년 그 유명한 노벨상 만찬연회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청사 타워의 높이는 106미터이며,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365개의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타워의 정상에는 9개의 종이 있습니다. 제일 큰 종의 무게는 3000킬로이고, 매 한시간마다 종이 울리며, 낮 12시와 저녁 6시에는 곡이 연주됩니다. 곡이 연주될 때에는 카리용안에 있는 인물상들이 타워의 동쪽에 있는 발코니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 인물상들은 성 조지와 드래곤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워를 지을 때 대략 250만개의 벽돌이 쓰여지고, 그 무게는 2만 4천톤이며 그 무게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두배정도의 무게입니다.

승강기는 타워 중심부에 있는 타워 미술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청사의 여러 장소에 있는 동상과 조각등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타워 미술관 뒤에는 좁은 계단과 통로가 정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은 목조이며, 종이 울리는 기계를 지나게 됩니다.

목조계단에 오르면, 쇠창살로 둘러싸인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망대의 정상부분은 안전상의 문제로 닫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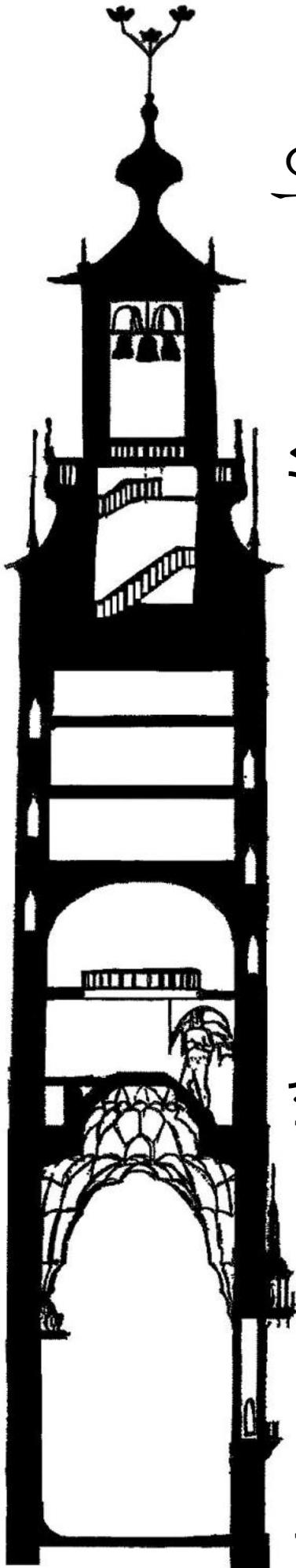
전망대는 해면으로부터 73미터의 높이에 위치하고, 타워 주위 스톡홀름 전체를 한눈에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톡홀름의 수호성인인 성 에릭을 포함한, 4개의 큰 조각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탑의 정상에는 3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왕관은 1300년대 즉 14세기 서부터 스웨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왕관들은 1697년에 전소된 구 왕궁이 세워져있던 구시가지(감라스탄)를 향해 있습니다. 그 왕궁의 정상에도 3개의 왕관의 침탑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타워의 왕관은 금도금을한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왕관은 각각 넓이 2.2미터, 높이는 1.1미터, 무게는 70킬로입니다.

# 시청사 타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전망대

타워 입장에 관한정보:

타워 입장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티켓에 쓰여있는  
시간에만 유효하며,  
다른시간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타워입장은 동시에  
30명 까지만  
입장가능합니다.

관람시간은 최대  
35분까지 관람하실  
수있습니다.

승강기는 타워의  
중간부분인 미술관까지  
운행합니다. 그 후에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종이 뒷면에는 타워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쓰여있습니다.

좋은시간되세요.

